

## 대학생의 진로발달 변인에 기초한 군집유형별 진로서비스 요구의 차이

박 민 지<sup>†</sup>

김 계 현

서울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점수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군집 유형을 확인하고, 각 집단별로 진로서비스 요구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대학생 304명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군집유형을 확인하였다. 각 군집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특징을 고려하여 군집 1은 '확신-결정-행동형', 군집 2는 '미확신-미결정-행동지향형', 군집 3은 '미개발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집단별로 진로서비스 요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대상의 진로서비스 제공 시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진로서비스 요구, 군집분석

---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박민지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1동  
E-mail: libmj323@snu.ac.kr

서론

통계청이 올해 3월에 발표한 '201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11.1%로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7월(11.5%) 이후 15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통계청, 2015). 세계 경제 불황과 고용시장의 고학력자 수요와 공급불균형으로 인해 대학생의 취업난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장계영, 김봉환, 2011). 청년 실업은 이제 개인을 넘어 우리사회의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요즘 대학가에서는 '대학 5학년', 'NG(No Graduation)족' 같은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취업준비를 위해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취업과 관련된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더불어, 학생들이 대학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진로탐색 및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하지 못해 취업 준비를 위한 시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김민정, 김봉환, 2014). 이러한 상황들로 미뤄 볼 때, 대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는 상담적 개입이 더욱 요구된다.

진로상담 연구자들과 실천가들은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해왔으며, 연구와 실천의 측면에서 '차별적인 진단과 차별적인 처치(differential diagnosis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강조해왔다(김봉환, 김계현, 1997). 즉, 진로문제로 상담을 받고자 하는 내담자들에게 동일한 처치를 하기 보다는 내담자 각각의 특성과 그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상담전략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내담자에 대한 차별적인 진단이다(김봉환, 김계현, 1997).

내담자에 대한 차별적인 진단을 위한 방법 중

의 하나로 진로관련 변인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통해 나타나는 군집의 특성을 확인하고, 각 군집의 차별적인 특성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김봉환(1997)의 이차원적 유형화를 시작으로 이제경(1997)은 사범대학생으로 제한되었던 대상을 교대, 인문계열, 사회대 등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유형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조애리(1999)는 네 가지 유형과 성격 5요인 간의 관계를 통해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 임지영(2009)은 각 유형별로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김정화 외(2012)는 각 군집별 진로장애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렇게 유형화를 통한 연구는 각 유형들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차별적 대상에 대한 차별적 접근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이 실제로 대학에서 제공되는 진로서비스에 대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요구가 내담자들의 진로관련 특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연구는 이재창 외(2007)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재창 외(2007)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진로 유형별 진로상담에 대한 기대를 살펴보고, 그 결과 진로유형에 따라 진로상담에 대한 기대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모두 낮은 집단이 진로결정수준은 낮으나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모두 높은 집단, 진로결정수준은 높으나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상담에 대한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에 진로상담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형별 진로상담에 대한 기대감은 확인하였으나, 서로 다른 유형에 속한 학

생들이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진로서비스를 받기 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외 연구 또한 내담자가 진로상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동기(Lewis, 2001), 진로·학업 문제를 가진 내담자들이 상담자에게 기대하는 특성(Gelso et al., 1985), 진로상담에 대한 기대와 자기관여 수준과의 관계(Tinsley et al., 1994) 등의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내담자가 진로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기대와 이러한 기대가 내담자의 진로관련 특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학에서 제공되는 진로상담 서비스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발달수준과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김경화, 2012).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과정은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ASCA, 2003; Brown, 2007 재인용)이며 이를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효과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2013년 동아일보와 채널 A, 딜로이트 컨설팅이 전국 50개 대학의 4학년 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이용률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체 79%는 취업지원시설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15%에 그쳤다(동아닷컴, 2013. 5. 23). 이러한 결과의 중요한 이유로는 홍보 부족과 더불어 잠재적 수요자인 학생의 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의 부재가 꼽혔다. 수혜 대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그들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Niles & Bowsbey, 2009). 요구분석의 최종적인 목적은 합당한 정보와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린 후 프로그램의 개발 초기 단계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조아라, 2007). 이러한 의사결정과 목표설정이 타당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담자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파악되어야 한다.

그동안 진로와 관련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에 관한 연구는 대학생의 성별, 학년 및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등 진로발달 관련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학년에 따른 진로서비스 요구의 차이를 살펴본 박가열(2009)의 연구에서 고학년은 취업에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의 면접이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과 같은 구직기술에 대한 요구가 우선한 반면 저학년의 경우 인턴십이나 해외 취업준비, 그리고 기업이 요구하는 기초직무능력과 같이 장기간의 준비가 요구되는 진로개발 역량 교육내용에 요구가 우선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2004)의 연구에서도 학년별로 진로지도에 대한 요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는 4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순으로 진로지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학년의 경우 전과나 편입학에 관한 안내와 지도를, 3학년의 경우 취업교과목 개설, 창업 정보, 자격증 정보, 취업 워크숍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발달 변인과 진로서비스 요구에 관한 연구들은 진로결정수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진로결정수준이란 개인의 전공 선택 및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과정에서의 진행수준과 미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나타낸다(Harren, 1979). 이는 진로결정 혹은 진로미결정이라는 이분법적인 속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념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한 지점을 지칭한다. 진로결정은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 등의 발달적 개념들과 관련이 있고(김정화 외, 2012) 진로가 미결정인 상태일수록 진로상담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창 외, 2007; Fouad

et al., 2006).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에 대한 인지나 태도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라면, 진로준비행동은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측면과 관련된 변인으로 김봉환과 김계현(1997)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으며, 인지나 정서의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형태의 차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로준비행동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높아지며(김봉환, 1997; 이재경, 1997) 진로결정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과정으로(구본용, 유제민, 2010)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진희, 김봉환, 2008). 이처럼 진로관련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과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상담에 대한 기대감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진로유형 가운데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이 모두 낮은 집단이 진로상담에 대한 동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창 외, 2007).

그 다음으로 진로서비스 요구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또 다른 변인으로 진로정체감을 들 수 있다. 진로정체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진로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적인 청사진을 의미한다(Holland, 1985). 진로정체감은 개인의 진로발달수준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raef et al., 1985). 이외에도 진로정체감은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진로성숙, 진로의사결정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개인의 진로정체감은 진로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발달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이상희, 오보영, 2014). 진로정체감의 3수준(낮음-중간-높음 수준)에 따른 진로개입 요구의 차이를 살펴본 김태선(2003)의 연구에서는 자기이해와 전공 및 진로탐

색에 대한 진로 개입 요구는 정체감의 3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이해와 전공 및 진로탐색에 대한 진로 개입 요구 모두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은 진단 구인으로 설계되어 있어, 개인의 진로정체감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욕구를 가진 내담자를 위한 적절한 처치 목표를 상정하게 한다는 장점을 가진다(김태선, 2003).

이상과 같이 선행 연구들은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을 대학생의 진로발달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진로서비스 요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은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에 따라 특정한 집단에 분류되었을 때 해당 집단은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진로서비스 요구를 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통해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유형화 하여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고, 유형별로 진로서비스 요구의 차이를 확인하여 적합한 진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에 따라 몇 개의 군집으로 나타나는가?

둘째, 군집별로 성별, 학년별 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군집별로 진로서비스 요구에는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서울, 경기 소재의 12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30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은 남자 123명(40.5%), 여자 181명(59.5%)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1.19( $SD=2.48$ )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63명(20.7%), 2학년이 69명(22.7%), 3학년이 70명(23.0%), 4학년이 102명(33.6%)이었다. 전공별 분포를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이 122명(40.2%)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학계열 63명(20.8%), 자연계열 83명(27.3%), 예체능계열 23명(7.6%) 사범계열이 11명(3.6%), 의학계열이 2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 측정도구

###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Holland와 Daiger 및 Power(1980)가 개발한 검사를 김봉환(1997)이 번안하고, 김태선(2003)이 한국 대학생 622명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진로정체감 척도는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다”, “나는 나의 장점이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인지를 모른다” 등 총 1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척도의 점수는 “아니다”에 응답한 반응의 총 수로 계산된다. 진로정체감 척도의 높은 점수는 자신의 목표(goals), 흥미(interests), 성격(personality), 재능(talents) 등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그림(clearer picture), 즉 진로정체감(sense of career identity)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김봉환, 1997).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3로 나타났다.

###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Osipow et al.(1976)이 개발한 진로결정검사(Career Decision Scale: CDS)를 고향자(1992)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한 경험의 미결정 정도를 평가하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채점에 포함되지 않는 자유반응형 문항 1개를 제외하고 “나는 진로를 결정했으며 그 결정에 따른 편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어떻게 수행해 갈지를 알고 있다”,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해서 당분간 결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싶다” 등 18문항을 사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고 문항 1~2는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확신수준을 의미하며, 문항 3~18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가 결정된 상태가 아님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62로 나타났다.

###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봉환(1997)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검사를 사용하였다. 진로준비행동검사는 자기이해, 직업정보 탐색 등에 투자하는 실질적인 노력과 행동을 평가하는 검사로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한 책이나 팸플릿 등을 구입하거나 혹은 읽어보았다”,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등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56로 나타났다.

**진로서비스 요구**

**질문지의 구성.** 본 연구를 위하여 제작된 진로서비스 요구분석 질문지는 대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 적응하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6개 영역,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리커트 형식의 자기보고 질문지이다. 요구분석에서 분석의 방법은 ‘요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분석을 실시하는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요구란 ‘원하는 것(wants)’의 개념이 아닌 가장 ‘필요로 하는 것(needs)’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Misanchuk(1982)와 Scissions(1982)의 교육요구 분석 틀을 바탕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Misanchuk(1982)와 Scissions(1982)는 교육요구분석에서 파악해야 할 세 가지 요소로 과업수행에 대한 개인의 능력, 이 과정을 수행하는데 특정 기술이나 능력이 관련되는 정도, 교육(서비스)을 받으려는 개인의 열의(동기)를 제시했다. 즉, 한 개인이 특정한 일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수행수준은 낮고, 교육으로 해결하려는 동기가 높을수록 실제 요구가 높다고 가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Misanchuk(1982)와 Scissions(1982)이 제안한 중요도, 숙달도, 학습열의(학습자의 동기) 등 세 요소를 요구 분석에 적용하였다. 단, Misanchuk(1982)와 Scissions(1982)가 사용한 개념을 진로서비스 상황에 적합하도록 ‘숙달도’를 ‘현재준비수준’으로, ‘동기’나 ‘학습열의’를 ‘(진로서비스) 기대수준’으로 대체하고 이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진로서비스 요구를 산출하였다.

진로서비스 내용 요소의 수집을 위하여 학술연구정보서비스(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를 통해 ‘진로’, ‘요구’, 이와 유사한 검색어로서 ‘진로개발’, ‘경력개발’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진로서비스 내용 구성에 참고할 선행연구를 6편을 선정하고, 이 연구들로부터 110개의

항목을 추출하였다. 진로서비스 내용 요소의 분류 작업은 박사수료자 1명, 박사과정 3명, 석사과정 1명이 합의과정을 거쳐 수행하고 상담전공 교수 1인의 검토를 거쳤다. 예비분류 및 논의 단계에서는 각각 진로서비스 내용 요소들을 같은 것들끼리 유목으로 분류하고, 이 중 분류 곤란으로 지적한 요소와 상위 수준의 요소로 판단된 요소들은 본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본 분류와 논의 단계는 카드 분류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유사한 유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카드끼리 묶어서 분류한 뒤 유목의 명칭을 붙이고 하위 내용들이 영역에 적합한지, 문항 간 비중이 비슷한지 등을 고려하여 너무 광범위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은 삭제하거나 내용을 묶었다. 최종적으로 상담전공 교수 1인, 박사 수료 1인이 서로 통합이 가능한 요소들은 통합을 하고 하위 유목명도 재검토 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진로서비스의 내용을 6개 영역, 20개의 항목으로 확정하였다. 각 항목은 항목의 명칭과 함께 “전공 별 진출 가능한 취업 분야 탐색 : 졸업 후 진로, 전공 관련 직업, 직장 등의 정보를 습득하는 것”, “진로의사결정 : 다양한 진로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그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그 항목의 정의를 함께 명시하였다.

**질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 진로서비스 요구 분석 질문지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로전문가 4인에게 각 문항이 진로서비스 내용으로서의 적합한 정도와 각 문항의 정의가 항목을 잘 설명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4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진로전문가 4인은 남 1인, 여 3인으로 모두 교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상담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며 평균 상담경력 16.7년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부적합’에서 ‘매우 적합’까지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타당성 검토 결과

표 1. 진로서비스 영역과 하위 항목

영역	하위 항목
영역 1. 자기이해	흥미/적성 이해
	가치관이해
	성격이해
영역 2. 진로정보	가정/사회 환경 이해
	직업세계의 동향 및 전망 이해
	진공 별 진출 가능한 취업 분야 탐색
영역 3. 의사결정 및 진로계획	진로-직업정보습득
	의사결정 유형/방법 이해
	진로결정
영역 4. 구직기술	장/단기 진로계획수립
	취업준비과정 이해
	진로-직업정보 탐색 방법 습득
	자기소개서/이력서 작성 방법 습득
영역 5. 대인관계	면접 방법 습득
	리더십능력
	팀워크능력
영역 6. 자기관리	갈등관리능력
	시간관리
	학습관리
	직업과 생애역할의 조화

20개의 항목은 1문항을 제외하고 ‘적합(3.0-4.0)’으로 나타났으며 문항의 정의 역시 ‘적합(3.5-4.0)’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1개 문항(리더십능력)의 경우 4명 중 3명의 전문가가 ‘적합’으로 평정한 점을 고려하여 진로서비스 내용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진로서비스 요구 질문지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20개의 문항에 대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를 살펴본 결과 중요도가 .81, 현재준비수준이 .87, 기대수준이 .88로 내적합치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사용된 진로서비스의 유목과 하위 항목은 표 1과 같다.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검증력을 높이기 위하여 위계적 군집분석과 비위계적 군집분석의 조합을 사용하였다(Hair & Black, 2000). 위계적 군집분석에서는 Ward's method를 사

## 상관관계연구

용하여 응집계수(agglomeration coefficients)를 살펴보고, 덴드로그램, 응집계수와 군집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군집 수를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추출된 군집들의 평균을 시작점으로 삼아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means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뉜 군집들 사이의 진로서비스 요구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군집에 따른 진로서비스 하위 요인(자기이해, 진로정보, 의사결정 및 진로계획, 구직기술, 대인관계, 자기관리)을 다변량분석으로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군집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Tukey 방법으로 사후 분석을 하였다. 또한 각 군집들의 진로발달 변인별 평균, 인구학적 특징과 학년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표 2와 같다.

### 군집분석 결과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을 기준으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Wards 방법을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의 계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3개의 군집이 제안되었다. 1단계에서 생성된 군집 변인들의 각 군집별 평균 점수를 초기 중심점(seed point)으로 투입하여 2단계에서 K-means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군집 1( $n=94$ ), 군집 2( $n=128$ ), 군집 3( $n=82$ )이 나타났다. 기준 변인의 Z점수를 토대로 각 군집의 특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각 군집의 특성을 파악하고 군집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 표 3에 각 군집별 진로변인들의 점수를 나타냈다. 군집 1은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모두 높은 집단으로 '확

표 2.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 진로정체감									
2. 진로결정수준	.78**								
3. 진로준비행동	.31**	.30**							
4. 영역1(자기이해)	-.38**	-.33**	-.08						
5. 영역2(진로정보)	-.27**	-.29**	-.19**	.29**					
6. 영역3(의사결정및진로계획)	-.32**	-.26**	-.15*	.50**	.40**				
7. 영역4(구직기술)	-.32**	-.32**	-.24**	.40**	.45**	.38**			
8. 영역5(대인관계)	-.26**	-.19**	-.15**	.40**	.24**	.44**	.36**		
9. 영역6(자기관리)	-.17**	-.16**	-.09	.52**	.24**	.53**	.33**	.46**	
평균	47.99	36.11	7.64	6.46	5.58	4.72	4.70	4.47	4.32
표준편차	8.20	8.08	4.25	2.97	2.57	2.44	2.77	2.29	1.79

\*  $p < .05$ , \*\*  $p < .01$





그림 1.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군집의 특징

표 3. 군집별 평균

	군집 1	군집 2	군집 3
진로정체감	12.77(2.49)	5.19(2.36)	5.57(2.72)
진로결정수준	57.23(6.18)	43.97(4.60)	43.67(5.58)
진로준비행동	40.36(6.72)	39.31(4.72)	26.22(4.60)

군집 1 = 확신-결정-행동형, 군집 2 = 미확신-미결정-행동지향형, 군집 3 = 미개발형

신-결정-행동형; 군집 2는 진로준비행동만 높으며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은 낮은 '미확신-미결정-행동지향형', 군집 3은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이 모두 낮은 '미개발형'으로 명명하였다.

#### 군집별 성별 학년별 특성

각 군집에 속한 학생들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남성 123명 중 군집 2에 속한 남성이 49명(39.83%), 군집 1이 39명(31.70%), 군집 3이 35명(28.36)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성 181명 중 군집 2에 속한 여성이 79명(43.65%), 군집 1에 속한 여성이 55명(30.39%), 군

집 3에 속한 여성이 47명(25.97%)으로 나타나 본 표본에서는 남녀 모두 낮은 진로정체감과 진로미결정, 행동지향을 특징으로 하는 군집 2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집별 학년분포를 살펴보면 군집 1에서 4학년이 50명(53.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집 2에서는 4학년 38명(29.7%), 3학년 36명(28.1%), 2학년 29명(22.7%), 1학년 25명(19.5%)으로 나타났다. 군집 3에서는 1학년이 30명(36.6%), 2학년이 25명(30.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군집별 성별, 학년별 분포

	군집 1	군집 2	군집 3
남성	39(31.70)	49(39.83)	35(28.46)
여성	55(30.39)	79(43.65)	47(25.97)
1학년	8(8.5)	25(19.5)	30(36.6)
2학년	15(16.0)	29(22.7)	25(30.5)
3학년	21(22.3)	36(28.1)	13(15.9)
4학년	50(53.2)	38(29.7)	14(17.1)

군집 1 = 확신-결정-행동형, 군집 2 = 미확신-미결정-행동지향형, 군집 3 = 미개발형

군집별 진로서비스 요구 차이

군집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세 집단이 진로서비스 요구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세 집단의 진로서비스 요구 차이를 다변량분석으로 비교하였다. 자기이해, 진로정보, 의사결정 및 진로계획, 구직기술, 대인관계, 자기관리 영역에 대한 요구 점수를 비교한 결과, ‘자기관리’영역을 제외하고 집단들 사이의 진로서비스 요구 점수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Wilks’

Lambda = .83, F=4.745, p=.000). 각 집단별 점수와 사후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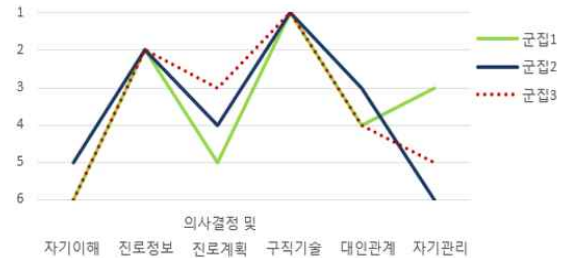


그림 2. 군집별 진로서비스 요구 우선순위

표 5. 군집별 진로서비스 요구 비교

진로서비스 영역	집단	평균	F	sig.	post hoc
진로서비스 요구도 총점	군집 1	85.41	18.42	.000	①<②, ③
	군집 2	104.9323			
	군집 3	114.5518			
자기이해	군집 1	3.59(1.31)	11.97	.000	①<②, ③
	군집 2	4.65(1.76)			
	군집 3	4.63(2.07)			
진로정보	군집 1	4.68(1.98)	12.75	.000	①<②<③
	군집 2	5.60(2.47)			
	군집 3	6.57(2.095)			
의사결정 및 진로계획	군집 1	3.83(1.66)	10.98	.000	①<②, ③
	군집 2	4.91(2.25)			
	군집 3	5.45(3.11)			
구직기술	군집 1	5.31(2.45)	13.77	.000	①<②, ③
	군집 2	6.60(2.85)			
	군집 3	7.55(3.27)			
대인관계	군집 1	3.93(2.09)	5.66	.004	①<②, ③
	군집 2	4.93(2.61)			
	군집 3	5.21(3.47)			
자기관리	군집 1	4.17(1.92)	1.37	.257	①, ②, ③
	군집 2	4.53(2.17)			
	군집 3	4.72(2.79)			

마지막으로 각 군집별 진로서비스 요구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집단별 요구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 논 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기준으로 군집유형을 살펴본 결과 총 3개의 군집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 군집 1은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이 모두 높고 각 변인에 대한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집단은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고, 특정한 진로를 결정하여 관련한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집단은 진로서비스 요구에서 모든 영역에 대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진로서비스 영역에 대한 요구 우선순위는 영역 4(구직기술)-영역 2(진로정보)-영역 6(자기관리)-영역 5(대인관계)-영역 3(의사결정 및 진로계획)-영역 1(자기이해)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확신-결정-행동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반면 진로준비행동은 높은 집단이다. 진로서비스 요구도의 경우 영역 1(자기이해), 영역 2(진로정보), 영역 3(의사결정 및 진로계획), 영역 4(구직기술), 영역 5(대인관계)에 대하여 군집 1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높은 요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서비스 영역에 대한 요구 우선순위는 영역 4(구직기술)-영역 2(진로정보)-영역 5(대인관계)-영역 3(의사결정 및 진로계획)-영역 1(자기이해)-영역 6(자기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군집 2를 ‘미확신-미결정-행동지향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 3은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

준, 진로준비행동이 모두 낮은 집단으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경우 세 집단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로서비스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은 요구를 나타냈다.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이 낮을수록 진로서비스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태선, 2003; 이재창, 2007). 이 집단의 진로서비스 영역에 대한 요구 우선순위는 영역 4(구직기술)-영역 2(진로정보)-영역 3(의사결정 및 진로계획)-영역 5(대인관계)-영역 6(자기관리)-영역 1(자기이해)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군집 3을 ‘미개발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진로준비 양상에 개인차가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차별적인 진로서비스가 개발·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군집별로 가능한 개입 전략들을 제안하면, 전체 인원 94명 중 71명(75.5%)이 3, 4학년으로 구성된 군집 1 ‘확신-결정-행동형’ 집단은 선택한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와 입직 후의 직업적응에 대한 상담적 개입이 필요한 유형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이들은 취업준비과정의 이해, 자기소개서/이력서 작성 방법 습득, 면접방법 습득, 진로-직업정보 탐색 방법 습득으로 구성된 영역 4(구직기술)에 대한 요구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적응에 해당하는 영역 6(자기관리)과 영역 5(대인관계)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써(박가열, 2009)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이 높으면서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구체적인 구직기술과 더불어 입직 후의 직업적응에 관한 상담적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군집 2 ‘미확신-미결정-행동지향형’ 내담자들은 자신의 흥미, 적성, 재능에 대한 확신이나 진로에 대한 뚜렷한 방향은 없지만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집단으로 진로정체감 수준이 세 집단 중에서 가장 낮고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에는 전 학년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전체 124명 중 74명(57.8%)이 3, 4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학년 가운데도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높으나 자신과 진로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이 부족하고, 진로결정수준도 낮은 학생들이 상당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군집 3 '미개발형' 집단의 경우 세 변인 모두가 낮고 특히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세 집단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군집 2와 군집 3 모두에서 취업준비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역(구직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김경화, 2012; 박가열, 2009)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난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목표, 흥미, 재능 등에 관한 안정된 상이 부족하고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군집 2와 군집 3의 경우에도 취업준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직기술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가장 높은 것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군집 3의 경우 전체의 67.1%가 1, 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진로정체감이 낮은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자신에게 적절한 진로준비활동이 무엇인지 자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김태선, 2003). 따라서 진로정체감 수준과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진로서비스에는 자신의 진로발달 상황을 파악하고, 현재의 진로준비과정을 점검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흥미, 적성 등의 탐색을 통한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의사결정과 계획수립, 실행으로 구성되는 진로개발 로드맵과 더불어 로드맵의 각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주

도적으로 진로탐색과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하도록 조력하는 서비스가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준비 유형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고려하여 진로준비 상태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연구들은(김은주, 김지현, 2010; 김정화 외, 2012) 진로결정에만 중점을 두었던 기존 진로연구에 실천적 요소를 더하여 개인의 진로준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김민정, 양현정, 2015).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진단구인으로 설계되어 다양한 욕구를 가진 내담자를 위한 처치 목표를 설정하기에 용이한 진로정체감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서비스 요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군집 1과 군집 2, 군집 3은 진로정체감 수준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진로준비 유형 연구에서 진로정체감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집단의 특징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유형화를 통해 각 유형들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진로발달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요구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서비스의 기획·제공을 위한 기초자료 및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요구분석의 가장 큰 목표는 어떤 프로그램의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수행되는 요구분석은 목표를 확인하거나, 목표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한편, 자원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영역을 구체화하는 작업들로 이루어진다(문수정, 1999). 대학에서의 진로서비스는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모든 문제와 욕구를 다룰 수 있도록 포괄적이면서 동시에 대상에 대한 차별적인 진단과 개입이 가능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서비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서비스 내용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군집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보인 영역은 '구직 기술과 '진로정보'였다. 이는 대학생들의 대학의 진로서비스 기관에서 가장 제공받기를 원하는 서비스를 나타낸다. 취업준비과정을 이해하고, 실제 구직에 요구되는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작성, 면접 방법 등을 다루는 서비스와 함께 전공 별 진출 가능한 취업분야를 탐색하고 진로·직업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단, 이 가운데 군집 2와 3의 경우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이 모두 낮은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군집 3의 경우 전체의 67.1%가 1, 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서비스는 구직기술에 대한 진로서비스 이전에 자신의 진로 발달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기에 필요한 진로 준비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역1(자기이해), 영역2(진로정보), 영역3(의사결정 및 진로계획)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기획·제공해야 하며 다른 학년보다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이 낮지만 진로준비행동수준은 높았던 군집 2의 경우 전 학년이 고르게 분포되었고, 3, 4학년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대학에서 제공되는 진로서비스의 경우 학년뿐만 아니라 개인의 진로발달 수준의 차이가 반영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기관에서 구직 기술에 관한 진로서비스를 요청하는 고학년 대학생에 대해서도 그들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을 확인하고, 필요 시 진로와 관련한 인지나 태도의 발달을 향상시키는 상담적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요구분석 방법은 중요도,

현재준비수준, 기대수준을 살펴봄으로써 단일 지표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요구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진로발달 및 준비 유형의 하위유형을 탐색하고, 각 유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으나 이러한 결과는 추후 연구를 통해 반복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군집 분석은 표본의 특성에 민감하므로 보다 많은 수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세 개 군집의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반복 검증 연구는 유형의 분류와 유형에 따른 상담적 개입을 위한 경험적 자료로서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준비행동 척도(김봉환, 1997)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도구이나 최근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이 활성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지난 몇 개월 동안의 경험을 묻는 문항의 경우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를 위해 제작한 진로서비스 요구분석 질문지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도구로서, 향후 대학 내 진로서비스 기관에서 잠재적인 서비스 수혜자의 요구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활용도가 높은 도구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추가적인 타당화 작업을 위해서는 요인분석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 요인분석과 같은 다른 방법을 통해 추가적인 타당화 과정을 거친다면 한층 의미 있는 요구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구본용, 유제민 (2010). 진로상담: 부모의 긍정적 관여와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1), 171-187.
- 김경화 (2012). 연구논문: 대학생의 진로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요구도 분석. *청소년학연구*, 19(6), 359-379.
- 김민정, 김봉환 (2014). 대학생 진로자기조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5(6), 2311-2325.
- 김민정, 양현정 (2015). 진로준비행동, 취업스트레스,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진로준비 유형 탐색. *상담학연구*, 16(1), 95-110.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김은주, 김지현 (2010). 한국 대학생 진로준비유형 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733-752.
- 김정화, 김미경, 김진경, 고은영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군집유형과 진로장애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417-442.
- 김태선 (2003). 대학생용 진로정체감 검사의 타당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문수정 (1999). 상담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상담자의 경력수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박가열 (2009). 대학생 진로개발 역량을 위한 교육요구 분석. *진로교육연구*, 22(2), 181-198.
- 양진희, 김봉환 (2008). 여대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1(2), 57-71.
- 이상희, 오보영 (2014).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4 단계와 6 단계의 비교: 탐색유예 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459-480.
- 이용자 (2004). 대학생 요구조사 분석을 통한 진로지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5(4), 1095-1110.
- 이재창, 박미진, 김진희 (200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상담에 대한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2), 111-127.
- 이제경 (1997).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발달의 대학전공분야별 비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임지영 (2009). 공학교육방법: 공대생들의 진로발달의 이차원적 유형화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 *공학교육연구*, 12(3), 13-20.
- 장계영, 김봉환 (2011).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2(2), 539-558.
- 조아라 (2007). 멘토링 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조애리 (1999).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탐색행동과 성격 5 요인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청년드림 대학평가 특별취재팀 (2013). 취업지원센터에 대학생이 없다(동아닷컴, 2013. 5. 23). <http://news.donga.com/3/all/20130522/55315247/1>.
- 통계청 (2015). 2015년 2월 고용동향.
- Brown, D. (2007). *Career information, career counseling, and career development(9th ed.)*. Boston, MA: Allyn

- and Bacon.
- Fouad, N. A., Guillen, A., Harris-Hodge, E., Henry, C., Novakovic, A., Terry, S., & Kantamneni, N. (2006). Need, awareness, and use of career services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4), 407-420.
- Gelso, C. J., Prince, J., Cornfeld, J. L., Payne, A. B., Royalty, G., & Wiley, M. O. 'Leary (1985). Quality of counsellors' intake evaluations for clients with problems that are primarily vocational versus personal.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32*, 339-347.
- Graef, M. I., Wells, D. L., Hyland, A. M., & Muchinsky, P. M. (1985). Life history antecedents of vocational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7*(3), 276-297.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 147-20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rren, V. H. (1979). A Model of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Holland, J. L. (1985). *Making vocational choice: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Misanchuk, E. R. (1982). Toward a multi-component model of educational and training needs. Paper presented at annual meeting of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Dallas, Tx.
- Niles, S. G., & Harris-Bowlsbey, J. (2009). *Career development interventions in the 21st century* (3rd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 Scissons, E. H. (1982). A typology of needs assessment definitions in adult education. *Adult Education Quarterly, 33*(1), 20-28.
- Tinsley, H. E., Tokar, D. M., & Helwig, S. E. (1994). Client expectations about counseling and involvement during career counseling.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2*(4), 326-336.

원고 접수일 : 2015. 06. 15.  
수정원고 접수일 : 2015. 08. 03.  
게재 결정일 : 2015. 08. 11.

## Differences in the career service needs according to cluster types based on the career development variables of college students

Park, Min-Ji

Kim, Kay-Hy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cluster types based on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at would be predicting different needs of career services among college students. A total of 304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ree Clusters were derived using cluster analysis: Certain-Decision-behavior Type (Cluster 1), Uncertain-Indecision-Behavior-oriented Type (Cluster 2), Undeveloped Type (Cluster 3).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clusters were found in needs of career services. These results imply that differential diagnosi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appropriate treatment should be provided accordingly in career services.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for further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eeds of career services, cluster analysis